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인권보호·농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여 기대

임실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일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정철석 오수관총협 조합장과 임실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임실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전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오수면에 건립됐으며, 연면적 1,717㎡, 지하층,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기숙사는 총 29개의 객실을 갖추고 최대 87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각방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군은 오수관총협과 협력해 소규모·고령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5년 연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번기를 앞두고 3월말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40여명이 이 기숙사에 입주해 본격적인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실군은 지난 1일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정철석 오수관총협 조합장과 임실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이번 기숙사 준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는 물론, 농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숙사 준공을 계기로,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농촌인력충충센터 운영, 농촌인력 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달 105명의 계절근로자 단체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소규모 농가의 장기고용에 대한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투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규모를 기존 3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로 늘렸다.

농가의 이용금액은 1일 10만원으로 전년대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공공형 계절근로지원센터(063-644-7005)를 통해 최소 2~3일전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선 8기 순창군 공약완료율 86.1%

79개 공약 중 68개 사업 완료... 정상 추진 사업 포함 평균 추진율 95.4%

순창군이 새해에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높은 이행성과를 이어가며, 임기 마무리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2026년 1분기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분야 79개 공약 가운데 68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완료율 8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말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11개 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약의 평균 추진율은 95.4%로 집계됐으며, 사업 대부분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분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이 임기 초 공약목표인 전기차 지원대수 307대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면서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 단계로 전환됐다.

이 밖에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원공을 앞둔 보훈회관 건립사업

과 △2분기 착공 예정인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창의예술미래공간) 구축사업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임기말 기준(2022년) 전국 지자체 평균 공약완료율이 71.72%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선 8기 순창군의 공약완료율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공약 이행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완료 공약사업들 또한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로컬JOB센터, 도농 상생형 일자리 플랫폼 우뚝

임실군이 지역 고용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실군 로컬JOB센터'가 현장 중심의 행보로 지역 주민과 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도시 지역의 정형화된 고용 서비스에서 벗어나, 임실군만의 특수한 고용 환경을 반영한 '도농 상생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단순히 구인 정보를 공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관내 농가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조율하는 '발로 뛰는 매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인-구직 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돋보인다. 센터는 원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구직자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을 채용하는 경영체에는 종식비를 보조해 고용 부담을 낮췄다. 특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익산·김제·순창 4개 시·군이 연합해 참여했

으며, 전국 5개 권역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생학교 △달리는 배움터 △로컬공방형 배움터 △드로운 디지털생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 △배움페스티벌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 창업보육 맞춤형 지원 '탄력'

중기부 특허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남원시는 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특허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25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선정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연계한 창업보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창업, 입주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6천6백만 원을 투자, 남원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내 창업보육센터 창업·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며, 입주기

업의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목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기술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리뉴얼 개발·생산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등이다.

2027년에는 △지식재산(IP) 확보 △인중·임상·시험·검사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고도화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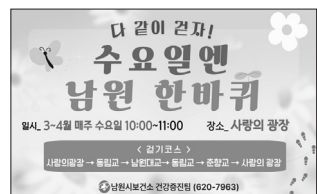
남원시보건소, 매주 수요일 걷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걷기 실천 프로그램인 '수요일엔 남원 한바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 동네 시니어 걷기리더' 양성 과정

을 통해 배출된 리더들이 주축이 되어 이끈다.

참여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광장에 집결해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마친 후, 요천로 일원 약 3km 코스를 걷게되며, 현장에는 운동 지도사와 걷기리더가 배치되어 올바른 걷기 자세를 지도하고 마무리 운동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부서별 평가대응 점검 보고회 가져

순창군은 지난 1일 순창 2층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13개 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서별 평가대응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025년 중앙 및 전북도 단위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58개 평가항목 중 중점관리 대상 24개에 대한 부서별 대응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평가 지표별 대응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 경제 여건 변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평가 대응을 단순 실적 관리가 아닌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점검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의 현재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신분증과 재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내 '조상 땅 찾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종합민원과 참구 방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열람해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일면 5칸·열면 4칸이며, 지붕은 열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열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